
발생주의 재정지표를 활용한 국가 재무정보 분석

2011. 4.

국가회계기준센터

목 차

I. 서론	1
II. 국내 재정지표 현황	3
III. 해외사례	12
IV. 재정지표 설문조사	21
V. 재정지표 도출	40
VI. 맺음말	45

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7년 10월에 국가회계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2009년 3월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의 전 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다¹⁾. 따라서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에 더하여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게 되며, 이렇게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가통합 재무제표는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기존의 정부 부문 예산회계는 예산과목별로 결산하는 단식부기 방식이면서 수입과 지출만을 기록하는 현금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에 비하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 결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정책과제를 위하여 투입된 현금지출액만을 나타낼 뿐 그 원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산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국가 전체의 자산과 부채 현황 및 사업원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나 정부회계기준 설정 및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새로운 회계제도 아래에서 국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국가 재무정보 분석을 위하여 재무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정지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발생주의 결산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지표란 국가의 재정과 관련한 정책적 의사결정자 또는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유용한 계량적 정보로 발생주의 재무회계자료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자료 또는 거시경제지표나 기타 통계자료²⁾를 이용하여 도출되는 비율 및 수치를 의미한다.

국가재정은 GDP의 25.1%³⁾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별 기금으로 단위가 산재되어 있으며 각 단위별로 세입, 세출, 국유재산, 물품, 채무 등의 정보가 산출되어 구성체계가 매우 복잡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외부 정보이용자가 쉽게 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의 상황이나 기초, 영향 등을 포괄적이고 압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재정지표가 필요하다.

재정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있는데, 첫째, 재정지표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둘째, 재정지표는 그 수치 자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재정지표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넷째, 재정지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이용에 따른 사회적인 효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지표 산출에 있어 별도의 수작업이나 업무량이 과다하게 추가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국가 재정지표 개발을 위하여, 먼저 기존 국내의 여러 재정지표들을 검토하고 해외 발생주의 도입국의 재정지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재정지표 pool을 마련한 후 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된 재정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GDP, 물가상승률, 실업률, 환율 등
기타통계자료 : 추계인구수, 공무원수, 타국의 재정통계(OECD 평균 등)

3)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 분야별 재정규모 중 [정부재정규모] 통계표

II 국내 재정지표 현황

1. 국가 재정지표 산출 및 공시 현황

1.1 통계청 e-나라지표 중 주요 재정지표

통계청은 e-나라지표 시스템을 통하여 국정 전 분야에 걸친 각종 국정통계에 대해 정확한 통계와 추이, 통계의미에 대한 분석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전문가 또는 정책결정자들이 국가 재정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필요한 국정통계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나라지표는 국토나 인구, 행정일반, 자치행정 등의 총량지표 외에도 경제, 사회, 문화, 정부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나 현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 분야 중 재정 부문에 대한 지표들을 논의하기로 한다.

재정 부문에 대한 지표는 재정일반, 분야별 재정규모, 기금·공적연금, 민간투자, 국세, 관세에 대한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일반 부문에서는 IMD⁴⁾ 경쟁력 평가 순위나 WEF⁵⁾ 경쟁력 지수 등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국가 채권 및 채무 추이, 국유재산 현황, 통합재정수지 등 정부 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재정규모는 공무원 인건비나 사회복지 재정규모 등 정부재정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4)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연구원) :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세계경제포럼이 운영하는 특수경영대학원으로, IMD 보고서는 지난 1979년부터 IMD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말한다. 매년 발표되고 있는 세계경쟁력 보고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성으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5)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민간 국제기관으로 매년 13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평가를 하고 있다. 1979년 이후 국제경영개발원(IM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과 공동으로 발표해 오다, 1996년부터 각각 독자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다. 통상 IMD는 상반기에, WEF는 하반기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기금·공적연금은 기금운용규모, 연기금 투자폴 수익률, 연기금 투자폴 수탁규모와 같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각종 국세 및 관세와 관련한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2.1> e-나라지표의 재정지표

중분류	소분류	지 표
재정	재정일반	재정건전성 순위, 경상수지, 채권·채무추이, 통합재정수지 등
	분야별 재정규모	공무원 인건비 규모, 사회복지 재정규모, 정부 재정규모
	기금·공적연금	기금 운용규모, 연기금 투자폴 수익률 및 수탁규모
	민간투자	BTO, BTL 등 민간투자사업 현황
	국세	국세 및 지방세 비중, 국세수입실적, 조세부담률 등
	관세	환급방법별 관세 환급실적, 관세 세수실적 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나라지표는 현금주의에 의한 각종 수치 또는 특정 분야의 규모나 추이 등을 분석하는 지표가 대부분이지만 정부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나 채무 등 중요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접목하여 새로운 재정지표를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 만하다.

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주요 재정지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국가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결산 현황과 통합재정수지, 채권·채무·국유재산 현황, 민간투자사업 현황, 국세수입실적, 조세부담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기금의 경우 수입)과 세출(기금의 경우 지출)에 대한 예산 및 결산 현황은 각각 소관별, 회계별, 성질별로 중앙정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권·채무·국유재산·물품에 대해서도 소관별, 회계별 금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재정지표와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지표

구분	내 용
예산현황	세입/세출에 대한 소관/회계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정보 등
결산현황	세입/세출 결산정보, 채권/채무/국유재산/물품에 대한 정보 등
통합재정통계	일반, 중앙, 지방 정부에 대한 통합재정수지와 구성 내역
재정지표	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국가 채무 및 채권 현황, 조세부담률 등
일일경제지표	일자별 금리, 주가, 환율 및 유가, 곡물, 원자재 가격 등 일일 정보

1.3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기존 재정지표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이용한 재정지표가 공식적으로 공시되거나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부처의 결산보고서 결산개요 부분에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증감표 등 재무제표에 대한 증감분석 등이 존재하며, 결산지원단의 중앙관서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현황보고서에 각 재무제표 수치를 이용한 비율지표를 시범적으로 분석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상태표를 이용한 재정상태지표로는 유동비율, 순자산비율, 부채비율이 있으며, 재정운영지표로는 공무원인건비 비율, 관리운영비 비율, 예산집행액 대비 원가비율, 순자산 대비 원가비율이 있다. 재정상태지표 중 유동비율이나 부채비율은 이미 민간에서 재무분석 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표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며, 순자산비율도 민간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자기자본비율을 그대로 수정하여 만든 지표로 민간과 국가부문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아 국가 재정 고유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지표들이 대부분이다. 재정운영지표도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만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지표로 국가 재정지표 개발에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3> '09년 결산보고서상 재정지표

구분	지표명	산식
재정상태지표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순자산비율	순자산 / 총자산 × 100
	부채비율	총부채 / 순자산 × 100
재정운영지표	공무원인건비 비율	공무원인건비 / 총비용 × 100
	관리운영비 비율	관리운영비 / 프로그램총원가 × 100
	예산집행액 대비 원가비율	프로그램총원가 / 예산집행액 × 100
	순자산 대비 원가비율	프로그램순원가 / 순자산 × 100

2. 지방 재정지표 산출 및 공시 현황

2.1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의 재무분석지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는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요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 및 통계 등 설명 자료를 기술한 결산총평을 포함하고 있으며⁶⁾, 이 결산총평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재무보고서 상의 재무분석은 재정상태 분야, 재정운영 분야, 회계책임성 분야로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하여 전체 2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상태 분야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등 재정상태표의 구성항목 간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9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상태 분야의 전체 지표는 <표2.4>와 같다.

6)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분야 지표

지표명	산식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총자산 × 100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③ 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	(총부채 - 기초단체 용자액) / 총부채 × 100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장·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 현금창출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학자금 위탁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⑥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 재정자금 : 현금·현금성자산 + 장·단기 금융상품
⑦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 × 100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

재정운영 분야는 예산 대비 세출비율,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등 재정운영표 외에도 재정상태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의 항목간 수치 비교를 통해 산출할 수 있는 9가지 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표 2.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분야 지표

지표명	산식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세출액 / 예산현액 × 100
②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 이자비용 : 차입부채 이자비용 ※ 경상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③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④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지표명	산식
⑤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경상자체조달수익 / 총수익 ※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⑥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미수자체조달수익 / 자체조달수익 × 100 ※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 + 미수세외수입금 + 일반미수금
⑦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미수세외수익 / 세외수익 × 100 ※ 미수세외수익 : 미수세외수입금 + 일반미수금
⑧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⑨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자산 취득액 / 지출액 × 100

회계책임성 분야는 주민 1인당 총자산, 주민 1인당 총부채, 공무원 1인당 급여 등 주민이나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한 11가지 지표들이 아래와 같이 도출되고 있다.

<표 2.6>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성 분야 지표

지표명	산식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총자산 / 인구수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총부채 / 인구수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실질부채 / 인구수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인구수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지방세수익 / 인구수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인구수
⑧ 주민 1인당 기타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 인구수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공무원(현원)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공무원(현원)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총급여 / 공무원(현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의 경우 국가회계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사용되는 용어도 민간과 달리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의 재정지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벤치마크하기 좋은 사례로 볼 수 있

으나, 주로 재무제표의 구성항목 간의 비율 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국가 재정지표 개발 시에는 이러한 재무제표 항목간 비율 외에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2.2 지방 재정분석

지방재정법 제55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함이다. 2010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는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이라는 3가지 분야에 대하여 총 20가지 분석지표와 6가지 참고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재정의 건전성은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정수지, 채무관리, 재정능력 관점으로 구분하여 지표가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의 효율성은 자치단체별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출절감과 세입확충 노력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 재정의 계획성은 계획적인 재정운용 노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 예산집행 실적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별 지표는 <표 2.7>에서 보듯이 세입세출결산서나 재무보고서 등 예산회계를 활용한 지표들이 대부분이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재정지표는 건전성 분야의 경상수지비율과 장래세대부담비율이 있다. 또한 재정통계 및 회계관리 목적의 6가지 참고지표 중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지표는 건전성 분야의 유동비율, 고정순자산 비율과 효율성 분야의 자산가동유지비 비율을 들 수 있다.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정지표는 <표 2.8>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표 2.7> 지방재정분석지표

분야	분석지표	대상회계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2. 경상수지비율*	통합회계	
	3. 지방채무잔액지수	통합회계	
	4. 지방채무상환비율	통합회계	
	5. 장래세대부담비율*	통합회계	
	6. 자체세입비율	일반회계	
효율성 (재정운영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일반회계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일반회계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일반회계
		10. 세입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일반회계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일반회계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일반,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일반, 기타특별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일반, 기타특별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일반, 기타특별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일반, 기타특별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	일반,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18. 예산집행률	일반,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율	일반,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일반,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참고지표	① 실질수지 비율, ② 행정운영경비 비율, ③ 시설비 지출 비율, ④ 유동비율*, ⑤ 자산가동유지비 비율*, ⑥ 고정순자산 비율*		

※ 표시된 5가지 지표는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정지표임

<표 2.8> 지방재정분석지표 중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 지표

분야	지표명	산식
건전성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 / 유형고정자산 × 100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 부채총계 : 유동부채 + 장기차입부채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고정순자산 비율	고정순자산 / 순자산총액 × 100
효율성	자산가동유지비 비율	자산가동유지비용 / 유형고정자산 × 100 ※ 자산가동유지비용 :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각 지표별 의미를 살펴보면, 경상수지비율은 자치단체의 경상적 수지와 비용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재정건전성이 낮음을 나타낸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현세대에 이미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부담규모를 비교함으로써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됨을 알 수 있으며,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검증하여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고정순자산 비율은 순자산 중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등 고정자본 형성을 의미하는 고정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고, 자산가동유지비 비율은 유형고정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방과 국가의 재무정보에 있어 국민의 주된 관심사나 지표의 의미가 비록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 재정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만하다.

III 해외 사례

1. 미국

1.1 연방정부 재무 보고서의 Citizen's guide

미국 정부의 재무보고서에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하여 Citizen's guide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속적인 경제 회복 노력과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재정상태와 주요 재무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특별한 재정지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산적자와 순운영원가의 비교, 총지출과 총수입 추세, 자산 및 부채 규모와 이자지출 등 정부 재정의 주요 항목에 대한 규모와 추세에 대한 요약정보와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재무정보를 거시경제 지표와 연계하거나 대내적인 원인 파악을 통하여 분석할 뿐만 아니라 장기 전망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가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나 향후 방향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가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참고할 만하다.

1.2 주정부의 재정지표

미국은 주정부 외에도 수 만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있어 미국의 모든 지방정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정지표 등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상태 진단은 대부분 지방정부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재정지표는 예산회계 정보를 활용한 지표들이 대부분이나, 발생주의 복식부기 실시 후 주 정부들의 재정상태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재정지표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진

7) 본 보고서의 뒤에 <부록 1>은 Citizen's guide의 전체 구성과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여 주고 있음

바, 대표적인 2개의 연구(Wang et. al. 2007; Johnson, 2009)에서 제시된 지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 정부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지표와 마찬가지로 재정건전성이나 연방정부(국가)로부터의 자립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동비율이나 수익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1> Wang et. al's Solvency Indicator

구분	지표명	산식
cash solvency	cash ratio	(cash+cash equivalent+investments) /current liabilities
	quick ratio	(cash+cash equivalents+investment+receivables) /current liabilities
	current ratio	current assets / current liabilities
budget solvency	operating ratio	total revenues / total expenses
	surplus(deficit) per capita	total surpluses(deficits) / population
long-run solvency	net asset ratio	restricted and unrestricted net assets /total assets
	long-term liability ratio	long-term(non-current) liabilities /total assets
	long-term liability per capita	long-term liabilities /population
service solvency	tax per capita	total taxes / population
	revenue per capita	total revenues / population
	expenses per capita	total expenses / population

<표 3.2> Johnson's Indicator

구분	지표명	산식
budgetary solvency	operating position	operating revenues /expenses
	liquidity	current assets / current liabilities
	financial position	unrestricted net assets / expenses
change in net assets / total net assets		
revenue measures	revenue	(general revenues+transfers) / operating revenues
		program revenues / operating revenues
		charges for services / program revenues
service level solvency	service level	program revenues / expense
	revenue and service-level solvency	BTA program revenue / TPG expenses

2. 영국

2.1 영국 자원회계의 재정분석 지표

영국 정부는 1998년 자원회계(resource accounting)를 도입하고, 2000년 자원예산(resource budgeting)제도를 도입한 이후 발생주의 인식기준에 의해 다양한 재무회계정보를 산출하고 있는데, 측정분야는 크게 ① 자원소비 ② 인건비 ③ 비용 ④ 운영자본 ⑤ 자산과 부채 ⑥ 고정자산 ⑦ 현금흐름 이상 총 7개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분야에 대해 재정분석지표를 설정하여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영국 회계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각 분야별 재정분석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3.3> 영국 자원회계의 재정분석지표

분야	지표	산식
자원소비	예산과 실적의 차이	• 당해 실제집행액 / 당해 예산액
		• 실제집행액 - 예산액
인건비	공무원1인당 인건비	• 인건비 / 공무원수
		• 전년 대비 당해 인건비 증감액 / 전년 인건비
비용	순운영비용 대비 목표당 순지출 비중	• 목표당 순지출 / 부처의 순운영비용
		• 전년 대비 당해 목표당 순지출 증감액 / 전년 목표당 순지출
		• 당해 목표당 순지출 - 전년 목표당 순지출
운영자본	채무상환기간	• (운영채무×365) / 기타행정비용(비현금항목제외)
자산과 부채	행정 또는 사업에 투입된자본의 비중	• 행정비용 중 자본부담금비용 / 자본부담금 총비용
		• 사업비용 중 자본부담금비용 / 자본부담금 총비용
고정자산	고정자산의 대체	•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종류별 순장부가액 / 자산 종류별 비용 또는 가액
현금흐름	경상활동 현금지출 대비 투자활동 현금지출의 비중	• 투자활동의 순현금흐름 / 경상활동의 순현금흐름
		• 고정자산 구입/경상활동의 순현금흐름
		• 당해 고정자산 구입액 - 전년 고정자산 구입액

2.2 영국 재정안정을 위한 재정규칙

영국은 1998년에 제정한 「재정안정성에 관한 규칙(Code for Fiscal Stability)」에 따라 재정정책 운용 시 지켜야 할 <재정규칙(fiscal rule)>⁸⁾을 마련한 뒤 준칙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5가지의 재정지표를 아래와 같이 개발·제시하였다.

<표 3.4> 재정원칙 이행 여부 판단을 위한 재정지표

그룹	지표 용도	지표명
Fairness and Prudence	‘황금규칙’ 준수	현행예산 흑자 및 평균 흑자, 경기변동효과 조정 후 현행예산 흑자
Long-term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투자규칙 준수	공공부문 순채무, 주요 채무(core debt), 순부(net worth), 기초재정수지
Economic Impact	재정정책의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공공부문 순투자 및 순차입, 경기변동효과 조정 후 공공부문 순차입
Financing	국채 발행액 등 결정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 순현금 필요액
European Commitments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준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GDP 대비 채무 비율

영국은 자원회계(RAB)⁹⁾ 도입에 이어 통합정부회계(WGA)¹⁰⁾를 마련하였는데, 통합정부회계는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된 회계제도를 만들어 자원회계를 보다 발전시키고, 양질의 투명한 재무정보의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황금규칙(Golden Rule)의 준수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8) ① 황금규칙(the golden rule) : 정부는 현재 지출이 아닌 투자를 위해 차입한다.
 ②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투자 규칙(the sustainable investment rule) : 공공부문 순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이고 견실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9) RAB : Resource Accounting Budgeting
 10) WGA : Whole of Government Accounting. 현재 정부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WGA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통합정부회계가 목표로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보고체제의 통합을 통해 보다 나은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정책입안 및 결정을 개선한다.
 ②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표에 대해 감사를 받도록 하여 의회 및 국민에 대한 회계책임을 강화한다.
 ③ 통합정부회계 안에 참여하는 다양한 공공부문 회계실체들의 신뢰성, 적시성, 유용성을 제고한다.

3. 캐나다

1.1 정부 재정상태 측정지표

캐나다의 공공부문회계위원회(PSAB, the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는 2007년 10월 ‘정부 재정상태 측정지표’에 대한 “Statement of Principles”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정부 재정상태에 대하여 공시되는 정보의 질적 향상과 지방정부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상태 측정지표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재정상태의 요소에 대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유연성(Flexibility), 취약성(Vulnerability)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가능성이란 정부가 부채나 세금 부담의 증가 없이 공공서비스 및 채권자와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의무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유연성은 정부가 공공서비스 및 채권자와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의무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채나 세금 부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취약성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재원에 대한 의존도 또는 정부 재정능력을 손상시킬 만한 위험에 노출된 정도로 경제 환경에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한편, 재정상태 측정 지표에 대한 질적 특성¹¹⁾과 양적 특성¹²⁾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상태의 3요소에 대하여 고유지표와 연관지표라는 양적 특성별로 재정지표를 <표 3.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1) 질적특성 : 신뢰성, 타당성, 관련성, 공정성, 비교가능성, 계속성, 이해가능성

12) 양적특성: 정부 고유 지표, 정부 연관 지표, 경기 전반 지표 3가지로

정부 고유 지표(Government-specific indicators)는 정부 재무제표로부터 산출되는 정부 재정지표이고, 정부 연관 지표(Government-related indicators)는 정부 재무제표와 국가 경제에 대한 정보들의 조합으로 산출되는 정부 재정지표이며, 경기 전반 지표(Economy-wide information)는 정부 재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제에 대한 정보를 말함

<표 3.5> PSAB에서 2007년 발표한 정부 재정상태 측정지표

재정상태요소	양적특성	지표명
지속가능성	고유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sets-to-liabilities financial assets-to-liabilities net debt-to-total annual revenue
	연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t debt-to-GDP deficit-to-GDP
유연성	고유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public debt charges-to-revenues net book value of capital assets-to-cost of capital assets
	연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wn-source revenues -to-GDP own-source revenues-to-taxable assessment
취약성	고유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government transfers-to-total revenues
	연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t foreign currency debt-to-net debt

1.2 지방정부 권장 재정지표

또한, PSAB는 2007년 발표한 재정상태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2009년 3월에 재정지표와 관련하여 “Statement of Recommended Practices 4”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재정상태 3요소(지속가능성, 유연성, 취약성)에 대하여 7가지의 지표를 각 지방정부에 권장되는 재정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3.6> PSAB에서 2009년 발표한 지방정부 재정지표

재정상태요소	지표명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잉여금 또는 결손금 (Annual Surplus or Deficit) 부채 대 금융자산 비율 (Financial Assets-to-Liabilities) 각 주(州)의 GDP 대비 순부채 비중 (Net Direct Debt-to-Provincial GDP)
유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수입 대비 채무 이자비용 (Debt Servicing Costs-to-Revenues) GDP 대비 자체 조달 수입 (Own-Source Revenue-to-Provincial GDP) 유형자산 취득원가 대비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Net Book Value of Tangible Capital Assets-to-Cost of Tangible Capital Assets)
취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정부의 총수입 대비 연방정부로부터의 전입금 비중 (Federal Government Transfers-to-Total Revenues)

4. 호주

4.1 호주 중앙정부

호주 정부는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요 재정목표를 기존의 현금주의 예산제도 하에서의 ‘현금예산의 균형 또는 흑자 달성’ 추구에서 벗어나 ‘경기변동에 대한 평균적인 균형재정 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연금, 의료보험 등과 같이 미래에 갚아야 하는 부채 금액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순자산(net assets) 목표치’와 같은 발생주의 재정지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정부의 주요 재정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었다.

주요 재정목표 변경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표 재정지표도 기존의 현금주의에 의한 ‘현금예산수지(cash budget balance)’에서 발생주의에 의해 측정되는 ‘재정수지(fiscal balance)’로 바뀌게 되었다.

재정수지는 현금예산수지에 충당금 및 발생주의 항목, 재평가손익, 자본지출항목을 조정하여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재정수지는 첫째, 재정정책이 국제수지 적자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 ‘순대부(net lending)’를 측정하는데 보다 적합하고 둘째, IMF의 정부재정통계(GFS) 및 UN의 국민계정체계(SNA 93)의 작성 시 별다른 조정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4.2 호주 지방정부

호주 지방정부에서 사용 중인 재정지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남부 호주 지방정부협회¹³⁾에서 지방정부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목적으

13)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로 작성하는 다음의 7개의 재정지표를 들 수 있다.

<표 3.7> 호주 지방정부의 재정분석지표

지표명	지표 산식 및 의의
Operating Surplus : 운영잉여	[산식] 운영수익(operating revenue) -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의미] 해당 지방정부의 운영수익이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
Operating Surplus Ratio : 운영잉여비율	[산식] 운영잉여(operating surplus) / 주요 통제가능 운영수익(major controllable operating revenue)
	[의미] 통제가능한 주요 수익이 동일기간 내 비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
Net Financial Liabilities : 순금융부채	[산식] 총부채(total liabilities) -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의미] 갚아야 할 부채 중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제외한 금액
Net Financial Liabilities Ratio : 순금융부채비율	[산식] 순금융부채(net financial liabilities) / 주요 통제가능 운영수익(major controllable operating revenue)
	[의미] 전체 수익 중 순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수익 비율
Interest Cover Ratio : 이자보상비율	[산식] 순금융비용(net finance costs) / 주요 통제가능 운영수익(major controllable operating revenue)
	[의미] 전체 수익 중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수익 비율
Asset Sustainability Ratio : 자산지속비율	[산식]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 감가상각비(depreciation)
	[의미] 일정 자산가액의 유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
Asset Consumption Ratio : 자산소비비율	[산식]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후가액 (the written down current value of depreciable assets) /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현행원가 (new value in up to date prices)
	[의미]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노후화 정도 및 교체에 소요되는 금액 추정 지표

5. 기타 국제기구

5.1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정책 분석지표

IMF는 일반정부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재정운영, 재정상태, 유동성의 변화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을 작성하고 있는데, 재정통계체제 내에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한 개정 GFS 체제를 2001년에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거시경제 분석을 위한 재정정책 분석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바, 주요 지표들은 순운영수지, 총운영수지, 종합재정수지, 국민부담률, 총지출, 총투자, 순금융자산, 총확정부채 등 우리나라의 e-나라지표와 마찬가지로 수지 관련 지표 또는 주요 항목의 규모에 대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5.2 유럽통화연맹(EMU)의 재정지표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유럽통화연맹에 가입하기 위한 재정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이후 1997년 유럽이사회에서 채택한 '안정과 성장 조약'을 통해 재정적자와 채무 수준에 대한 영구적인 제한을 두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EMU 재정지표이다. EMU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화폐 및 체제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세하고 복잡한 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숫자로 표현되는 재정지표를 도입하였다.

<표 3.8> EMU의 재정지표

지표명	지표 산식
Treaty deficit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 순차입은 GDP의 3% 이내이어야 하나 제한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음
Treaty debt ratio	• GDP 대비 채무 비율 ※ 총채무가 GDP의 60% 이내이어야 하며 한도를 넘을 경우 채무를 충분히 감소시켜 만족할만한 추세로 한도에 접근하도록 해야 함

IV 재정지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009년부터 중앙정부 부문에 새롭게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국가의 재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가의 재정지표를 검토하고, 지방과 해외의 재정지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사례를 참고하고 신규지표를 개발하여 재정상태 부문 19개 지표, 재정운영 부문 15개 지표, 국민관심 부문 15개 지표로 구성된 재정지표 pool을 마련한 후에, 2009년도 국가 재무제표 항목별 자료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가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그 수치가 중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였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초지표를 삭제 또는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문으로 제시할 지표 pool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pool을 바탕으로 개별 지표에 대한 각계의 수요 또는 활용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정지표의 목적을 국회의 정책적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각 부처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등으로 보아 설문조사는 국회의 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 재정, 예산,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 일반 부처 및 기금의 결산담당자 그리고 학계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2011년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이메일 송부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방식으로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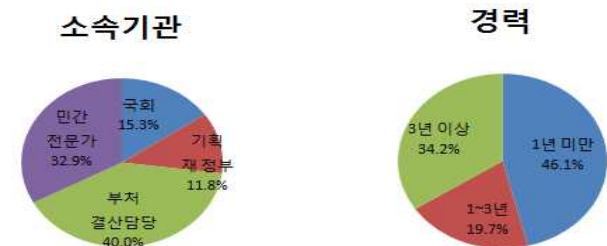
조사내용은 국가 재정지표 pool의 3가지 부문별 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중심으로 각 지표에 대한 활용가능성, 설문에 제시된 재정지표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재정지표 후보군에 대하여 활용도 및 중요도를 기준으로 한 선택과 재정지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 부가되어 이루어졌다.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2.1 응답자 특성

설문에 임한 응답자는 총 85명으로 응답자의 소속기관별 분포는 국회 15.3%, 기획재정부 11.8%, 부처 및 기금 결산담당자 40%, 학계 또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33%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정부의 예산 및 국가회계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 또는 국가회계경력이 3년 미만인 응답자가 전체의 65.8%나 차지하는 이유는 공무원 순환근무제도로 인하여 기획재정부나 각 부처의 공무원의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기획재정부 응답자의 90%, 결산담당자의 72.7%가 경력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설문 응답자 분포



2.2 지표 중요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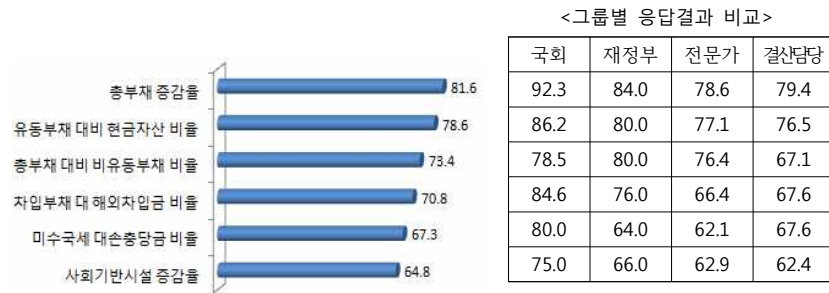
1) 재정상태 부문

재정상태부문의 6개 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는 평균 73점으로 대체로 지표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각 지표별로 비교하면 **총부채증감율**¹⁴⁾의 경우 국회, 재정부, 부처 결산담당자, 민간 전문가

14) 총부채 증감율 : '총부채 증감액 ÷ 전년도 총부채'로 국가 재정상태표상 총부채 금액이 전년도 대비 몇 %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에 대한 지표로 부채 규모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

모든 그룹이 공통되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선택하였으며, **유동부채 대비 현금자산 비율**¹⁵⁾은 모든 그룹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라고 응답하였다. **총부채 대비 비유동부채 비율**¹⁶⁾은 전체 응답자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었으나, 국회 응답자의 경우 다른 지표에 비하여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재정상태부문 지표별 중요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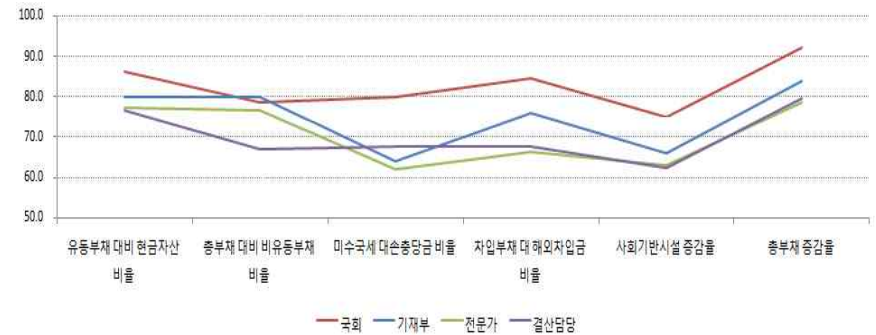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증감율**¹⁷⁾이나 **미수국세 대손충당금 비율**¹⁸⁾과 같은 지표들은 전체 그룹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고, 부채와 관련된 지표들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재정상태 중 재정건전성 측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채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 소속기관 그룹별로 보면 <표 4.3>에서 나타나듯이 국회가 다른 그룹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지표의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고,

- 15) 유동부채 대비 현금자산 비율 : '현금자산 ÷ 유동부채'로 유동부채 중 현금자산의 비중을 통하여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임
- 16) 총부채 대비 비유동부채 비율 : '비유동부채 ÷ 총부채'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부채 비율이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표값이 클수록 국가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 17) 사회기반시설 증감율 : '당년도 사회기반시설 증감액 ÷ 전년도 사회기반시설 장부금액'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전년 대비 증감율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 즉, 투자 증감을 알 수 있음
- 18) 미수국세 대손충당금 비율 : '대손충당금 ÷ 미수국세'로 국가의 주된 수입인 국세수입 중 12월말 현재 회수하지 못한 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의 비중을 나타내어 국세 징수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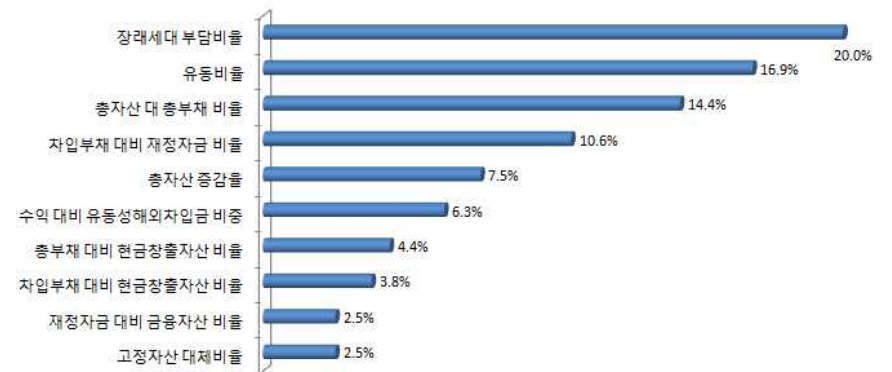
민간전문가 그룹은 상대적으로 중요도 점수를 낮게 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그래프의 추세가 그룹별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표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는 그룹별로 크게 차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 소속기관에 따른 그룹별 응답 결과



위에서 분석한 6개의 지표 외에 후보군에 있는 10개의 재정상태지표에 대하여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지표들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표 4.4>에서 보듯이 장래세대부담비율 및 유동비율이 15%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표 4.4> 후보군에 있는 재정상태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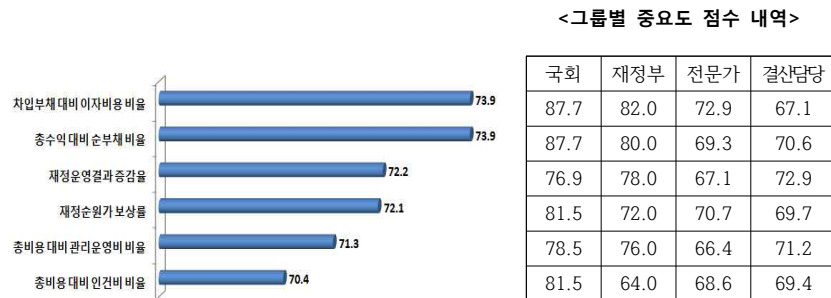
따라서 앞에서 분석한 6개의 지표 중 낮은 선호도를 보인 사회기반 시설 증감율이나 미수국세 대손충당금 비율을 후보군에 있는 장래세대 부담비율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재정운영 부문

재정운영부문의 6개 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는 평균 72점으로 대체적으로 지표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각 지표별로 비교하면 **차입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¹⁹⁾과 **총수익 대비 순부채 비율**²⁰⁾이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차입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부, 부처 결산담당자, 민간전문가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지목되었고, 총수익 대비 순부채 비율은 재정운영지표 중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표 4.5> 재정운영부문 지표별 중요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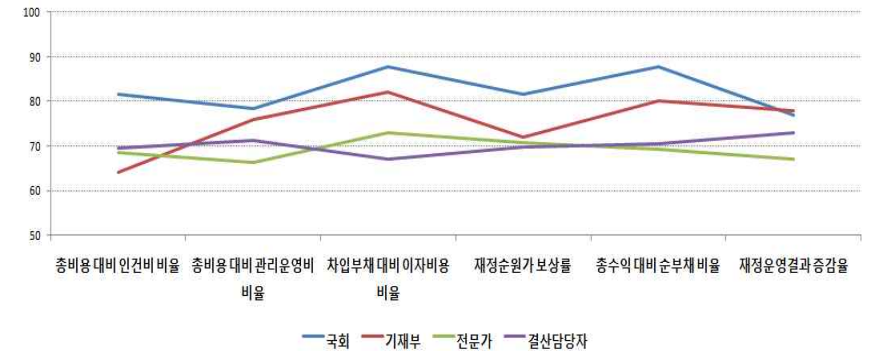
19) 일반적인 세수 외의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활동으로 발생한 차입부채와 이자비용의 대비를 통하여 국가 차입부채의 평균 이자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20) 총수익 대비 순부채(총부채에서 현금자산 및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재정운영결과 증감율**²¹⁾ 또는 **재정순원가 보상율**²²⁾의 경우 그룹별로 약간의 선호도 차이는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3, 4위의 지표로 선택되었으며,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²³⁾이나 **총비용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²⁴⁾과 같은 지표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총비용 대비 인건비나 관리비 비율은 국가 전체의 재정상태 보다는 운영의 효율성 측면 분석에 한정된 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별로 보면,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관심이 국회는 타 그룹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기획재정부는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산담당자의 경우 관리운영비 비율이나 재정운영결과 증감율에 다른 지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 운영의 효율성 결과에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소속기관에 따른 그룹별 응답 결과



21) 국가 재정활동으로 발생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정확하게는 재정운영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비용의 개념으로 발생주의로 측정된 국가 재정수지의 변화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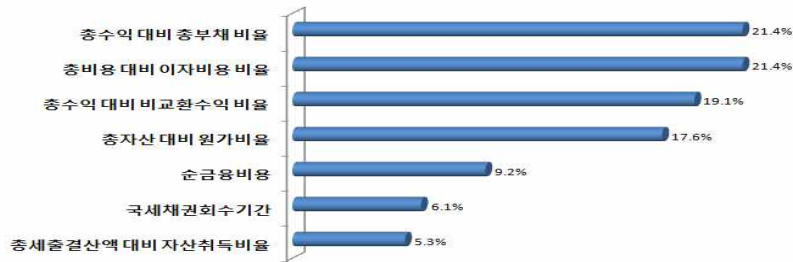
22) 재정운영순원가는 비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가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순원가 개념이므로 이를 조세수입,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의 크기와 비교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자체조달 비율을 파악할 수 있음

23)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한 전체 비용 중 행정운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이 비율의 추이를 통해 정부 또는 중앙관서의 효율적인 절감·관리노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24) 재정운영표 상 모든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함으로써 공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국가 재정운영지표 중 위에서 분석한 6개의 지표 외에 후보군에 있는 7개의 재정운영지표에 대하여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지표들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5% 이상이 선택한 지표가 4개이고, 이 중 총수익 대비 총부채 비율과 총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지표의 경우 전체 응답수 중 21.4%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재정상태지표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채 및 이자비용 등 국가채무와 관련된 지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4.7> 후보군에 있는 재정운영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



3) 국민관심 부문

국민관심지표 부문의 8개 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 평균 74점으로 대체적으로 지표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각 지표별로 살펴보면 GDP 대비 총부채 비율²⁵⁾의 경우 국회, 재정부, 부처 결산담당자, 민간전문가 모든 그룹에서 공통되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응답했으며, 국민 1인당 국가재정부담액²⁶⁾은 모든 그룹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국민 1인당 재정운영원가²⁷⁾는 민간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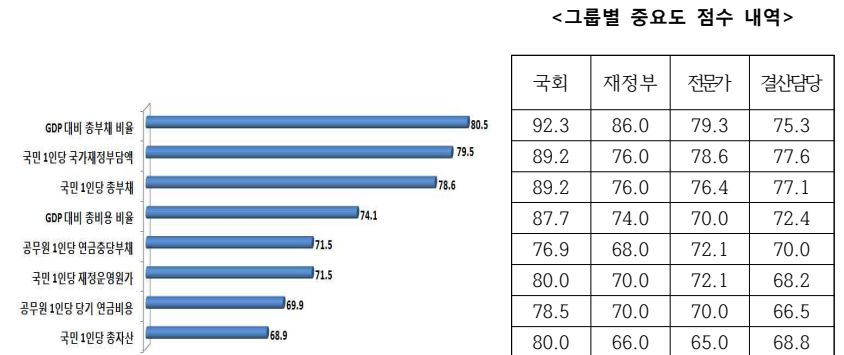
25) GDP에서 국가의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부채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적게 주고 있음을 의미함

26)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세, 부담금, 제재금, 사회보험수익 등 비교환수익의 크기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이 국가 재정을 각각 어느 정도씩 부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

27) 비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 재정활동에 대한 순원가를 인구수로 나누어 국가가 국민 한사람에게 공공서비스를

가 그룹의 평가와는 달리 국회 및 기획재정부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표로 평가되었다. 이는 아직 원가의 중요성이나 그 의미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8> 국민관심부문 지표별 중요도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공무원 1인당 당기 연금비용²⁸⁾이나 공무원 1인당 연금충당부채²⁹⁾과 같은 지표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고, 부채 및 재정부담액과 관련된 지표들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공무원 수에 대한 지표보다는 국민 전체에 대한 1인당 부채액, 재정부담액 등에 대해 더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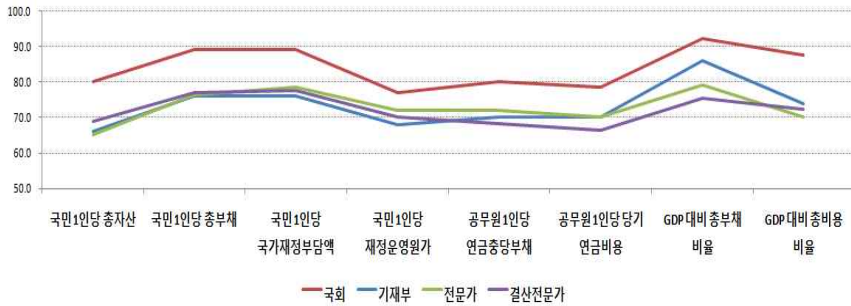
응답자 그룹별로 보면 그룹별로 평균점수는 다르지만 전체 그래프의 추세가 그룹별로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므로 지표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는 그룹 간에 유사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순원가가 얼마인지를 보여줌

28) 연금비용은 연금충당부채를 적립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국가에 발생한 비용으로 공무원 1인당 국가가 1년 동안 부담하는 연금비용의 규모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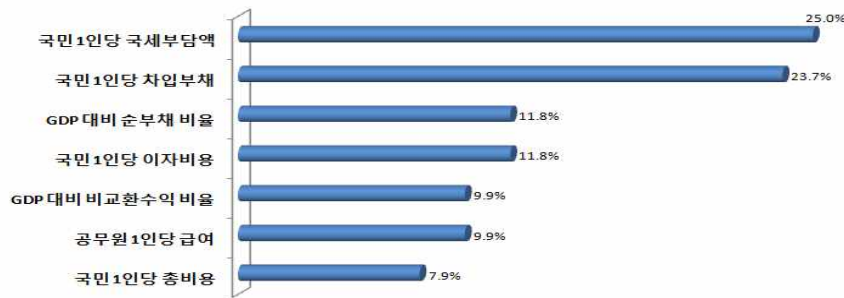
29)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연금충당부채로 공무원 한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지고 있는 채무의 크기를 의미함

<표 4.9> 소속기관에 따른 그룹별 응답 결과



국민관심지표 Pool에 있는 지표 중 앞서 분석한 8개의 지표 외에 후보군에 있는 7개의 국민관심지표에 대하여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지표들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국민 1인당 국세부담액과 국민 1인당 차입부채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25%, 23.7%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앞서 분석한 국민 1인당 재정부담액이나 국민 1인당 총부채 지표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4.10> 후보군에 있는 국민관심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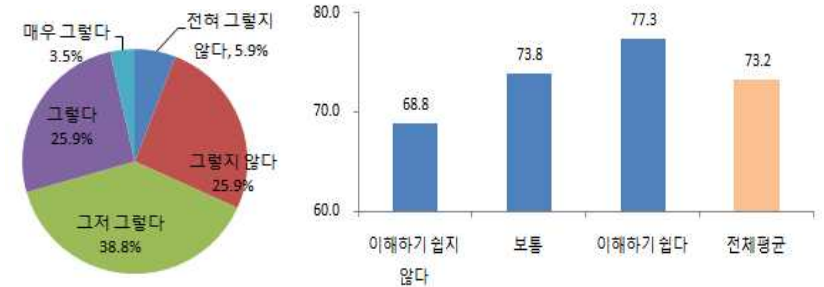
2.3 이해도 및 만족도 분석

1) 재정지표 이해도

재정지표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지표에 사용된 용어의 이해 정도, 재정지표 관련 지식이 충분한지, 재정지표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재정지표 분석으로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응답결과를 아래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재정지표에 사용된 용어들이 이해하기 쉬운 편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9.4%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38.8%는 보통으로, 31.8%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정부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 시행 초기단계임을 감안할 때 국가회계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4.11> 이해도 응답결과 및 그룹별 지표 중요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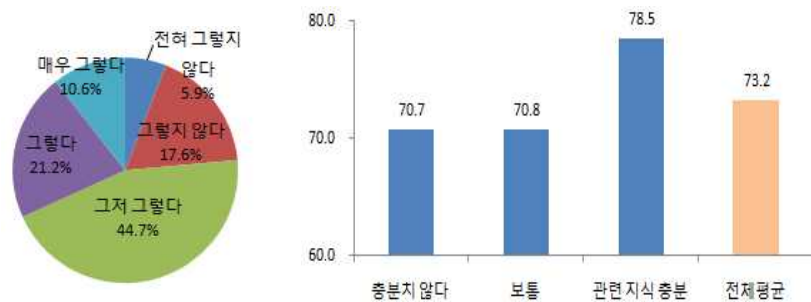


지표에 사용된 용어의 이해 정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3가지 부문(재정상태, 재정운영, 국민관심)의 전체 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 점수를 비교하면, 이해 정도가 높을수록 지표를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속한 소속기관별로 지표에 사용된 용어의 이해 정도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나 민간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이해가 쉽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국가회계가 아직 외부(국회 등)에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부처의 결산담당 공무원은 순환근무제 등으로 인하여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예결산 및 국가회계에 대한 경력에 따라 지표에 사용된 용어의 이해 정도를 살펴보면, 경력이 1~3년인 그룹에서 이해도가 가장 높고 1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경력이 3년 이상인 응답자는 국회나 민간전문가 그룹에 많이 분포해있기 때문에 경력 1~3년 그룹보다 국가회계와 관련한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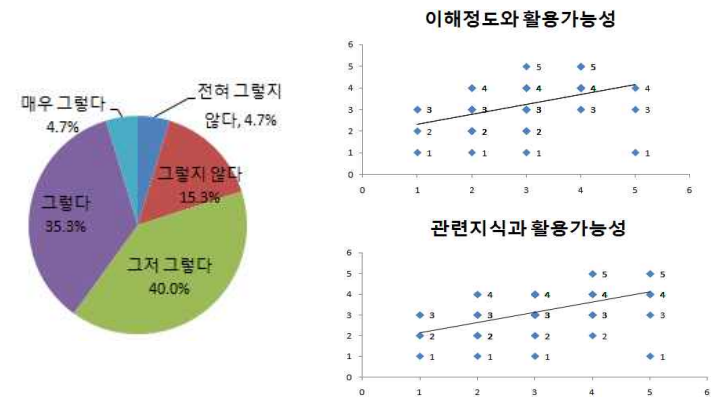
<표 4.12>에서 보듯이 재정지표와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44.7%가 보통이라고 답하였고, 31.8%는 관련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23.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재정지표 관련 지식 정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3가지 부문(재정상태, 재정운영, 국민관심)의 전체 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 점수를 비교하면, 관련 지식이 충분할수록 지표를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관련지식 응답결과 및 그룹별 지표 중요도 점수



또한, 재정지표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표 4.13>처럼 응답자의 29.4%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38.8%는 보통으로, 31.8%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는데, 앞에서 분석한 재정지표에 사용된 용어의 이해 정도 및 재정지표 관련 지식 여부와 활용가능성 인식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재정지표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응답결과 및 그룹별 지표 중요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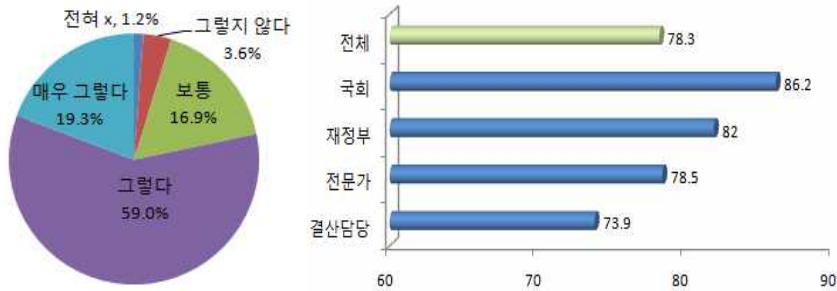
응답자가 속한 소속기관별로 재정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국회, 민간전문가, 기획재정부 순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일반 부처의 결산담당자는 매우 낮게 답하였다.

재정지표 분석으로 지표 도입 이전보다 유용한 재정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62.4%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답하였고, 응답자의 28.2%는 그저 그렇다로, 전체의 9.4%만이 부정적으로 답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분석한 이해 정도나 관련 지식, 지표의 활용 가능성과는 별개로 재정지표로 국가 재무제표를 분석함에 따라 유용한 재정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재정지표 만족도

설문에 제시된 재정지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① 국가 재정 파악의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 ② 재정지표가 국가의 재정과 관련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③ 국가의 재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정도를 재정지표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 ④ 재정지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4> 국가재정 파악 유용성 여부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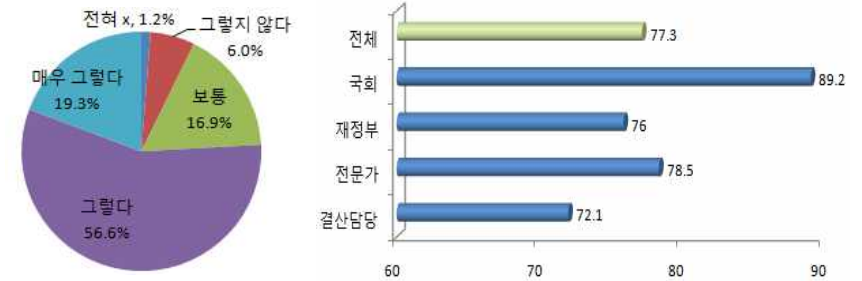


전체의 78.3%에 해당하는 대다수 응답자가 재정지표가 국가재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6.9%는 그저 그렇다로 답하였고, 전체의 4.8%만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나 기획재정부 등 국가 재정상태에 관심이 많은 기관의 응답자가 민간 전문가나 일반 부처의 결산공무원보다 더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는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전체의 75.9%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재정지표가 국가의 재정과 관련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하였고, 16.9%의 응답자는 그저 그렇다로 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4.8%만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부의 예결산에 대한 심사 및 감독 권한이 있는 국회의 응답자가 다른 그룹에 비해 재정지표가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많이 기대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15> 정책적 의사결정 영향 여부 응답결과



설문에 제시된 재정지표가 사회적 관심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표 4.16>처럼 전체의 48.2%의 응답자가 재정지표가 국가재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정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41.0%는 그저 그렇다에 답하였으며, 전체의 8.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이를 소속기관 그룹별로 살펴 보면, 국회나 민간 전문가의 응답은 긍정적인 편이나, 기획재정부는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기획재정부가 재정지표에 바라는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6> 사회적 관심 반영 여부 응답결과



이제 재정지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이 응답자의 49.4%는 재정지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의 44.6%는 보통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수의 응답자 6%만이 만족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바로 앞에서 분석한 재정지표가 사회적인 관심 정도를 잘 반영했는지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국회와 민간 전문가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획재정부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16> 재정지표 전반적 만족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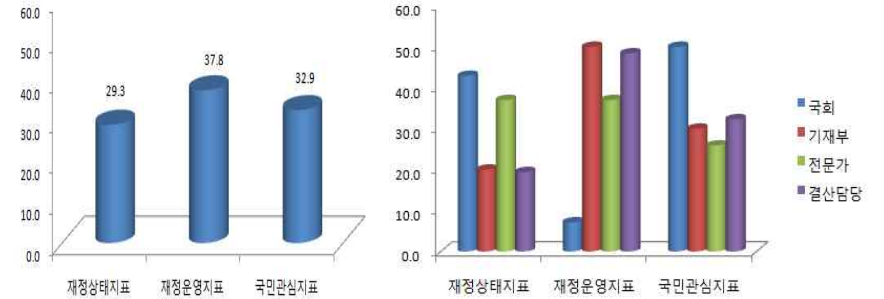
3) 재정지표 부문별 만족도

설문에 제시된 3가지 부문 즉, 재정상태 부문, 재정운영 부문, 국민관심 부문의 재정지표에 대하여 보완 필요성, 활용도, 중요도 3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자가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7>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지표가 보완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속기관에 따른 그룹별로 보면 국회의 경우 재정운영지표보다 국민관심지표와 재정상태지표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기획재정부는 재정상태지표보다 재정운영지표가 보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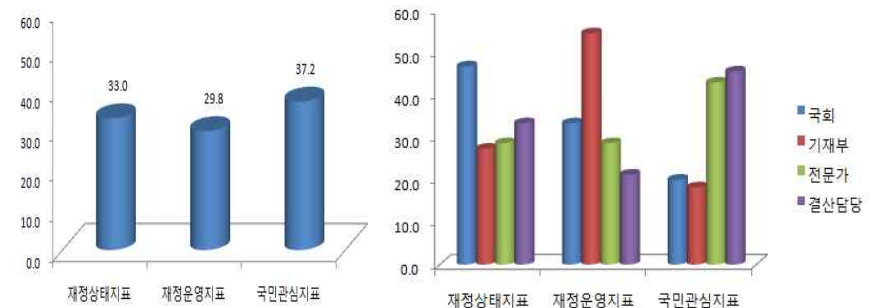
하였다.

<표 4.17> 보완이 필요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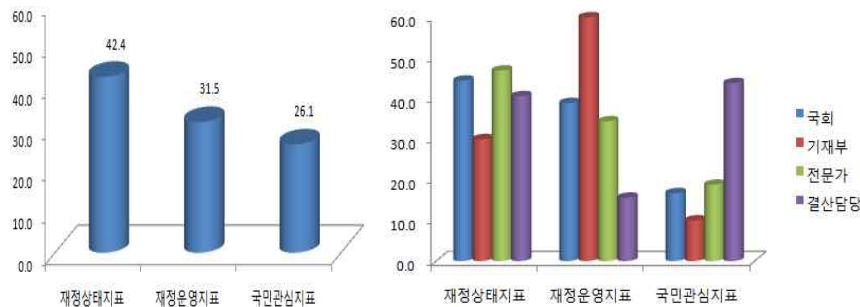
<표 4.18>에서 보듯이 재정지표의 활용도는 응답자 전체로 볼 때 국민관심지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표부문간 활용도에 있어 큰 격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속기관에 따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국회는 재정상태지표 > 재정운영지표 > 국민관심지표 순으로 활용도를 높다고 평가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영지표 > 재정상태지표 > 국민관심지표 순서로 활용도가 높다고 답하였다. 이는 국회는 재정 전반의 건진성, 국가 채무 등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고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측면이나 원가정보 등에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8> 활용도가 높은 분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의 42.4%가 재정상태지표를 선택하여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소속기관에 따른 그룹별로 응답결과를 살펴 보면, 앞에서 분석한 보완 필요성이나 활용도와 마찬가지로 국회는 재정상태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영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분야일수록 활용도가 높고, 보완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8> 중요도가 높은 분야



3. 설문조사 결과 요약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결과의 순위에 따라 부문별 재정지표나 부문별 후보군 재정지표를 추려 보면 부채나 이자비용 등 국가채무와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으나 특정 분야의 지표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영역이 중복되는 유사한 지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우선순위와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표를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9> 부문별 재정지표

재정상태지표	재정운영지표	국민관심지표
총부채증감율	총수익 대비 순부채 비율	GDP 대비 총부채 비율
유동부채 대비 현금자산 비율	차입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	국민 1인당 국가채정부담액
	재정순원가 보상률	국민 1인당 총부채
	총비용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	

재정상태지표 중 총부채 대비 비유동부채 비율은 타 부문에도 부채 관련 지표가 많고, 재정의 유동성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유동부채 대비 현금자산 비율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재정운영지표에서는 재정운영결과 증감율과 재정순원가보상률이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표현방식을 달리하는 재정수지와 관련된 지표인데³⁰⁾ 재정운영결과 증감율의 경우 비교식으로 표시되는 재정운영표로 증감 파악이 가능하므로 재정순원가보상률로 대체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운영의 효율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운영비 비율을 중요도 평가결과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하였다.

국민관심지표는 GDP 대비 총부채 비율과 국민 1인당 총부채 지표가 부채라는 같은 영역을 다루고는 있으나 그 의미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각각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모두 포함하였다.

장래세대 부담비율은 재정상태 후보군 지표 중 응답자가 가장 선호한 지표이며, 차순위 지표로는 유동비율, 총자산 대 총부채 비율, 차입부채 대 재정자금 비율 등이 있는데 대부분 부채라는 영역에 특정되거나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들로 중복되기 때문에 모두 제외하였다.

30) 재정운영결과 증감율은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이고, 재정순원가보상률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대한 비교환수익의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재정운영순원가가 비교환수익으로 어느 정도 보전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표 4.20> 부문별 후보군 재정지표

재정상태지표	재정운영지표	국민관심지표
장래세대 부담비율	총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국민 1인당 총비용
고정자산 대체비율	총수익 대비 국세수익 비율	

한편, 고정자산 대체비율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순장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추정이 가능하며, 미래에 이러한 자산의 유지 또는 교체를 위한 비용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재정 유연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다른 지표와는 차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이를 추가하였다. 단, 동 지표의 경우 현재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 계상이나 자산의 감가상각이 유예된 상태로 당분간은 분석에 의미가 없으므로 향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덧붙여 재정운영지표에 사용된 총수익, 총비용, 이자비용 등은 국가 재정운영표만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므로³¹⁾ 부처별 재정운영표에서 내부 거래를 제거한 금액을 별도로 집계해야 지표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제 이 장에서 논의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지표의 목적과 중요도, 제공되는 정보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장에서는 국가 재정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재정지표는 국가 재무제표를 활용한 국가 재정지표와 중앙관서별 재무제표를 활용한 부처 재정지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 이용의 목적에 있어 각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채(또는 채무)와 관련된 지표의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고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별 재무제표 관점에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차입부채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국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실제로 설문응답자 중 국회나 기획재정부 소속 그룹의 경우 각 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응답자별로 편차가 적고 특정 지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중앙관서나 기금 결산담당자 그룹은 편차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대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와 같은 통제 성격의 지표들은 국가 차원에서는 중요도가 낮을 수 있으나 전년 대비 증감 등 부처의 기간 간 비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지표들을 국가 또는 중앙관서별로 그 대상을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지표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되, 국가회계나 재정지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나 응답자 그룹에 따른 각 대상별 지표활용목적에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1. 통합 재무제표에 대한 국가 재정지표

<표 5.1>은 설문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종합하여 제시한 국가의 재정지표이다. 총부채 증감을 및 유동부채 대비 현금자산 비율은 국가 총부채의 규모나 증감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유동부채를 상환할만

31)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원가에서 관리운영비를 가산한 후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을 가감하고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로 구성되며,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이러한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의 합에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를 보이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원가나 관리운영비 등 각 성질별 비용항목이 표시되지 않는다.

한 지급능력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설문 응답자 모든 그룹에서 중요도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사례에서도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동부채 대비 현금자산 비율은 정부 예산 특성상 볼 때 전년도의 지표가 도출되는 시점에 이미 당해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어렵고 국가의 채무(차입금)가 아닌 재정활동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유동부채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는 여러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표 5.1> 국가의 재정지표

재정상태지표	재정운영지표	국민관심지표
총부채증감율	총수익 대비 순부채 비율	GDP 대비 순부채 비율
장래세대 부담비율	차입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	GDP 대비 총비용 비율
고정자산 대체비율	재정순원가 보상률	국민 1인당 총부채
사회기반시설 증감율	총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국민 1인당 총비용
유형자산 증감율	총수익 대비 국세수익 비율	

이 외에도 설문 결과에 따르면 부채와 관련된 지표가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부채에 대한 영역이 많이 중복되고 있어 일부 유사한 지표는 제외하였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에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대한 투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자산정보를 활용하여 좀 더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래세대 부담비율이나 고정자산 대체비율, 사회기반시설 증감율, 유형자산 증감율 지표를 추가하였다.

장래세대 부담비율은 현세대의 투자와 차입으로 인하여 장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순효익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고정자산 대체비율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함으로써 단기에 자산의 유지나 교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가늠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 증감율은 국가의 인프라인 사회기반시설의 증감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방향을 알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 증감율의 보조지표로 사회기반시설 유형별 현황 등을 제시할 수도 있고, 민간투자사업(BTO, BTL)의 규모나 추이 등도 함께 보여주는 것도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기존에는 유형자산 중 국유재산과 물품 등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 보고서 형태로 정보가 제시되었으나, 이제 모든 유형자산 종류별 증감 추세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순부채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총부채에서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제외한 부채를 의미한다. 재정운영지표의 경우에도 부채나 이자비용 관련 지표가 많은 이유는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재무제표에서 원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그 종류가 매우 방대하여 원가 관련 정보는 제외하였고, 재정순원가 보상률은 재정운영순원가를 비교환수익과 비교하는 지표로 발생주의 통합재정수지와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총비용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가의 총수익 중 국세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보이용자가 국가 재정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총부채 보다 순부채의 개념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군 지표의 GDP 대비 순부채 비율로 대체하였다. 국민 1인당 국가재정부담액은 설문응답 결과를 참고할 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지표인데, 이는 e-나라지표의 조세부담액 및 국민부담액과는 차이가 있다. 조세부담액은 국세 외에도 지방세를 포함하고 국민부담액은 조세부담액에 사회보장부담액을 합한 것인데 비해, 국가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익에 포함되는 국민 재정부담액은 국세와 부담금, 사회보험수익의 합으로 산출되는 등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제시된 지표에서는 제외하였다. 국민 1인당 차입부채는 유사한 지표로 1인당 총부채나 1인당 순부채가 설문과 함께 제시되었는데, 차입부채는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부채로 총당부채

등이 제외되어 있어 더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였다. 국민 1인당 총비용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규모를 파악하고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2.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중앙관서 재정지표

중앙관서의 경우 국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재무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프로그램보다 상위 단계인 부문별 원가의 연도별 추세를 통하여 국가 사업이 어떤 분야에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인건비나 관리비에 대한 지표들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연도별로 비교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관서의 재정지표를 제시하면 <표 5.2>와 같다.

<표 5.2> 중앙관서의 재정지표

재정상태지표	재정운영지표	국민관심지표
	부문별 원가 증감율	공무원 1인당 인건비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	공무원 1인당 관리운영비
	총비용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	

위 표에서 보듯이 재정상태지표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중앙관서의 경우는 국가와는 달리 사업수행에 대한 원가 정보나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부처 개별 자산과 부채가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부처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는 결산보고서상 결산개요 부분에 요약정보와 그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회계실체별로 재정지표를 구분할 필요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유동부채 대비 현금자산 비율은 일반회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지표이나, 기금이나 기업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중요할 수 있듯이 각 회계실체별로 지표를 별도로

로 산출하는 것도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회계기준에 의하면 국가 단위의 통합 재무제표와 중앙관서 단위의 개별 재무제표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실체별 지표에 사용된 숫자가 보고서상의 숫자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하므로 기금 등의 일부 회계실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지표를 추가하여 분석하는 방식 등은 추후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 제시된 국가 및 중앙관서의 재정지표에 대한 산식과 지표가 갖는 의미, 대상 재무제표³²⁾나 자료산출에 필요한 보고서 종류 등은 <부록 2>에서 정리하였다.

32) 국가 재정지표의 경우 국가 통합 재무제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중앙관서 재정지표의 경우 개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정분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재정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재정분석이 의미가 있고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려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안착이라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즉, 회계나 결산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정지표 산출을 위한 재무회계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정보이용자나 의사결정자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제도 홍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재정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가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지표가 다루는 자료의 범위나 산출방식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추출하여 지표를 산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매뉴얼화 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정지표만을 다루었지만 향후에는 국가 사업 수행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 의사결정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원가 등을 산출량이나 성과와 연계시키는 등 원가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구분	항 목	세부내용
개요	안내서의 주요 내용	미국정부 재무상태 표시, 정부의 경제회복노력과 국가재정지속가능성 등 주요 재무토픽 논의
	경제상황	2010회계연도 4분기 국내총생산(GDP)
		2009, 2010회계연도 비농업일자리수 증감
2010회계연도 순운영원가 증가		
현금주의 미국 예산적자 감소		
<차트> 미국 예산적자와 순운영원가		
주택및경제회복법(HERA), 경제비상사태안정화법(EESA) 등 경제회복정책의 영향		
인구고령화,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등으로 인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문제		
<차트> 총지출, 순이자, 비이자지출, 총수입 추세 및 향후 추정치		
안내서의 중요성 확인	안내서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재무부장관, 관리예산처장 및 감사원장의 확인	
현재 상황	경제	주택건설부문 슬럼프, 비주택부문 투자와 소비 증가
		2009, 2010회계연도 비농업일자리수 증감
		핵심인플레이션을 감소, 실질임금 상승
		기업이익 증가, 연방세입 증가, 지출증가율 감소
	2010회계연도 재정적자 감소	
	수익과 원가	총정부수익 유지(법인세 증가, 개인소득세 감소)
		<차트> 정부 수익 구성
		정부순원가에서 보건복지비, 사회보장비, 국방비 등 비중
		순원가에서 퇴직급여 비중과 퇴직급여 연간 변동성
		군인퇴직급여의 연간변동성
재무부 경제회복 프로그램에 의한 순원가 증가		
<차트> 부처별 순원가변동(2006-2010)		
정부 최저순운영원가(순원가-세금-다른수익)의 증가		

구분	항 목	세부내용
현재 상황	원가와 예산적자 차이	현금주의에 기초한 정부예산의 의의 및 계획과 통제도 구로서의 중요성
		발생주의에 기초한 미국재무보고서의 의의(재정건전성 예 측 및 자산·부채 규모 산출)
		의사결정 및 통제수단, 국가 재무건전성 예측수단으로서 정부예산과 재무보고서의 중요성
		예산적자와 원가의 차이 발생 사유(군인·공무원퇴직급여, 국영기업체 미래예상지출)
		<표> 예산적자와 순운영원가의 차이
	자산과 부채	정부 자산·부채규모, 주요구성내역, 자산·부채 규모 증가 사유
		<차트> 정부 자산·부채(2010.9.30.)
		최근 수년간 몇 배로 증가된 정부부채 법정한도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위험
	경기 회복 노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무부 등 정부기관들의 금융시 장 안정화 및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
		주택및경제회복법(HERA)의 연방주택금융위원회(FHFA) 설립 을 통한 정부지원모기지업체(GSEs) 규제
		재무부를 통한 정부지원모기지업체 (GSEs) 금융지원으로 모 기지금리 하락 및 주택시장 유동성 공급
		경제비상사태안정화법(EESA)의 문제자산구제프로그램 (TARP) 수립을 통한 부실자산 매입 및 보증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유동성과 안전성 회복
		TARP 주요투자항목(자본구매계획을 통한 은행안정화, AIG투자, 자동차산업금융지원 등)
		<차트> TARP 주요투자항목
		TARP투자의 원가 산정에 불확실성 존재
		2009년 봄이후 경제상황의 안정은 재무부등 정부기관의 공격 적인 경기회복정책과 통화정책에 기인

구분	항 목	세부내용	
미래 전망	재무보고서 주요목적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재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미래 전망의 가정	현재 재정정책이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이자지급차감 예산적자, 이자, 부채	이자지급차감 예산적자(비이자지출과 수입의 차이)는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의 주요결정항목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한 GDP 대비 이자지급차감 예산 적자의 최근 증가 및 향후 전망
			<차트> 비이자지출 구성요소의 추세 및 향후 전망
			경기침체 및 세금감면으로 인한 GDP에서의 정부수입비중 의 최근 감소 및 향후 전망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붐세대 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사회보장비의 지속적 증가로 GDP 대비 비이자지출 비 중 증가
			<차트> 공공부담부채의 추세 및 향후 전망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에서의 공공부담부채의 향후 전망 차이
	재정격차와 정책개혁 지연비용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를 막기 위해서 지출 감소와 수입증가를 바탕으로 한 재정개혁이 필요 재정개혁이 늦어질수록 이에 따른 개혁지연비용 증가	
	결론	2010년 건강보험 재정개혁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켰지 만 GDP 대비 부채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예정 이 보고서의 현재 정책하의 지출과 수입전망은 매우 불확실 하지만, 현재의 정책들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므로 재정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Looking Ahead (마타보기)	재무적·재정적 위기 해결 및 경제회복 지속을 위한 정부의 노력	
사회보장 프로그램 관련 재정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현			

구분	항 목	세부내용
더 알아보기	재무보고서 내용	이 안내서에서 논의된 이슈들에 대한 세부내용 제공 정부의 현재, 향후 재정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 및 향후 재정과제에 대한 논의
	재무보고서 의의	입법자와 국민에게 재무정보 제공과 의사결정을 도움으 로써 미국의 재정기반 제고
	정보제공 사이트 소개	재무보고서와 국가 재정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사이트 (재무부 재정관리서비스, 예산관리국, 감사원)
	안내서 내용	재무보고서의 주요정보 소개
	감사보고서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페이지 소개 2007-2010년 사회보험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성이 증대하거나 감사범위제한이 있 는 경우 의견기질 표명 가능
정부의 재정상태 와 의견	재무보고서 내용	대통령과 의회 국민들에게 연방정부 세금운영방식에 대 한 종합적인 의견 제공 정부의 재정상태, 수익·비용, 자산·부채 및 주요 재정 이슈 논의
	숫자로 본 국가	총원가 - 수익 + 추정에 의한 손익 = 순원가 순원가 + 총 세입 및 기타 수익 + 기타 = 순운영원가 자산 - 총부채 = 순자산 자산 - (부채 + 공공채무 및 공무원 및 군인연금 + 기타) = 순자산 지속가능성 지표 사회보장보고서 페쇄그룹(현재 환자) 개방그룹(현재 및 미래 환자)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 페쇄그룹(현재 환자) 개방그룹(현재 및 미래 환자) 예산 결산 통합 예산 적자

부록 2 재정지표 세부 설명

구분	지표	지표 산식 및 의의	대상	비고
재정상태 지표	① 총부채증감율	[산식] 총부채증감액 / 전년도 총부채 ▪ 국가 재정상태표상 총부채 규모의 추이 파악	통합	재정상태표
	② 장래세대 부담비율	[산식] 차입부채 / (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 ▪ 현재 세대의 고정자산 투자로 장래세대가 얻게 될 경제적 효과와 현재 세대의 차입으로 인하여 장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채무를 비교	통합	재정상태표
	③ 고정자산 대체비율	[산식]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순장부금액 /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금액 ▪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추정이 가능하며, 미래에 이러한 자산 의 유지나 교체를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의 예측이 가능함	통합	재정상태표
	④ 사회기반시설 증감율	[산식] 전년 대비 당해 사회기반시설 증감액 / 전년도 사회기반시설 장부금액 ▪ 사회기반시설의 전년도 대비 증감 분석으로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이나 투자 증감을 알 수 있음	통합	재정상태표
	⑤ 유형자산 증감율	[산식] 전년 대비 유형자산 증감액 / 전년도 유형자산 장부금액 ▪ 유형자산의 전년도 대비 증감분석으로 기존에는 국유재산, 물품 등에 대한 개별보고서로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종류별(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자산 등) 유형자산 현황 파악 가능	통합	재정상태표

구분	지표	지표 산식 및 의의	대상	비고
재정운용 지표	⑥ 총수익 대비 순부채 비율	[산식] (총부채 - 현금 및 금융자산) / 총수익 · 총부채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총수익에 대한 비율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파악	통합	재정운영표
	⑦ 차입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	[산식] 이자비용 / 차입부채* *이자 발생하는 모든 부채 ·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입부채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로 국가 차입부채의 평균이자율 파악	통합	재정운영표
	⑧ 재정운영순원가 보상률	[산식] 비교환수익 / 재정운영순원가 · 국가 사업 수행의 순원가에 대한 국세수입이나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의 비율을 통하여 발생주의 회계 상 국가 재정 적자 및 흑자 여부 파악	통합	재정운영표
	⑨ 총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산식] 관리운영비 / 총비용 · 국가 재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로 전체 재정 규모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부담 정도를 의미	통합	재정운영표
	⑩ 총수익 대비 국세수익 비율	[산식] 국세수익 / 총수익 · 국가 총수익 중 국세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 재정 전체 수입 중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중을 의미	통합	재정운영표
	(a) 부문별 원가 증감율	[산식] 프로그램 상위 단계인 부문별 원가 증감액 / 전년도 부문별 원가 · 중앙관서의 모든 부문별 원가의 연도별 추세를 통하여 국가사업이 어떤 분야에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	개별	재정운영표
	(b)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	[산식] 인건비 / 총비용 · 총비용 중 인건비 비중을 연도별로 비교함으로써 정부 부문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냄	개별	재정운영표
	(c) 총비용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	[산식] 관리운영비 / 총비용 · 총비용 중 관리운영비 비중을 연도별로 비교함으로써 중앙관서의 효율적인 관리노력 또는 관리운영비 절감 노력 파악	개별	재정운영표

구분	지표	지표 산식 및 의의	대상	비고
국민관심 지표	⑪ GDP 대비 순부채 비율	[산식] (총부채 - 현금 및 금융자산) / GDP · 총부채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순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가경제에 정부부채가 주는 부담 정도 파악	통합	재정상태표, 거시경제지표
	⑫ GDP 대비 총비용 비율	[산식] 총비용 / GDP · 국가 재정규모가 국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통합	재정운영표, 거시경제지표
	⑬ 국민 1인당 차입부채	[산식] 차입부채 / 인구수 · 국민 1인당 국가차입부채 규모를 통하여 국민이 차입부채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를 나타냄	통합	재정상태표, 통계자료
	⑭ 국민 1인당 총비용	[산식] 총비용 / 인구수 · 국민 1인당 제공되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임	통합	재정운영표, 통계자료
	(d) 공무원 1인당 인건비	[산식] 인건비 / 해당 인원(현원) · 중앙관서별 재정운영표상 인건비를 인원수로 나눈 수치로 연도별 증감 분석을 통하여 인당 인건비 변동을 알 수 있음	개별	재정운영표, 통계자료
	(e) 공무원 1인당 관리운영비	[산식] 관리운영비 / 해당 인원(현원) · 중앙관서별로 1인당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비교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운영 여부의 파악이 가능함	개별	재정운영표, 통계자료